

VII. 호주

□ FY2010-11 : 2010. 7~2011. 6

□ 출처 :

- Budget overview 2010-11, 2010. 5
- Budget Paper No.1~No. 2 2010-11, 2010. 5
-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 2010. 7
- Final Budget Outcome 2009-10, 2010. 9
-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20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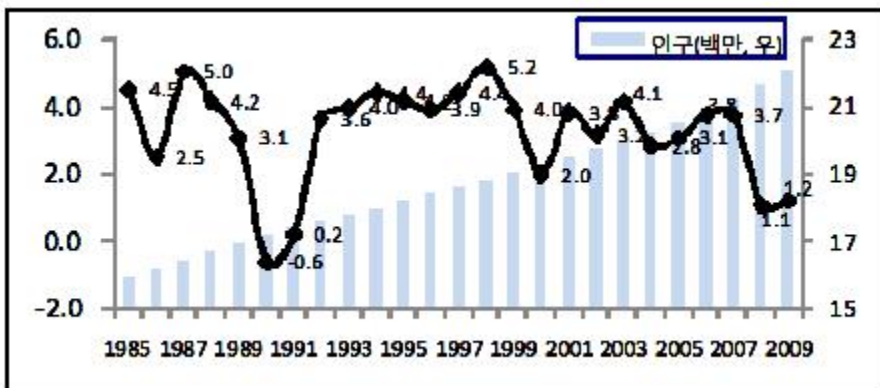
□ 환율 : 1호주달러 = 약 1,063.5원(2010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09년 경상GDP 8,765억달러(우리나라 0.7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09년 기준 39.9%(우리나라 95.9%)

□ 인구 : 2,210.1명(2009년 기준)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민간부문의 자력 회복, 실업률 하락 등으로 호주경제는 견고하게 성장
- 추세를 상회하는 경제성장과 재정규율 강화로 예상보다 빠른 FY2012-13에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예산기조: “책임 있는 경제운용과 예산 흑자로의 빠른 전환(Responsible Management and a Faster Return to Surplus)”이라는 기조 아래 6가지 요소에 중점을 둠

- 근로가구의 생계비용 완화 및 세제 간소화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투자 및 인프라 건설 확대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투자
- 자원세(Resource Tax) 도입 및 법인세율 인하 등의 조치로 경제성장 가속화
-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퇴직연금(Superannuation)제도 개혁
- 현대식 보건시스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건 및 의료개혁 수행

◇ 예산안 내용 (세입·세출 내역)

- FY2010-11 예산안의 총재정수입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
- FY2010-11 예산안의 총재정지출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경기부양
 - 호주정부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FY2008-09 및 FY2009-10에 수행했던 경기부양책을 거의 종료
- 경제성장
 - 호주정부는 자원세 도입과 법인세율 인하 조치로 경제성장을 가속화
- 재정건전화
 -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재정규율 강화
- 복지지출 관리 정책
 - (연금 관련) 호주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금(Secure and Sustainable Pensions) 지급을 위해 연금개혁안을 2009년 5월에 발표

<최근 재정 및 경제 동향 일지>

일시	주요 정책 및 사건	참고자료
2009. 2. 3	“국가건설 및 일자리 창출계획” 경기부양책 발표	재정동향 1호
2009. 5. 12	FY2009-10 예산안 발표	
2009. 5. 1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금지급을 위한 연금개혁안 발표	
2009. 5. 12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투자” 경기부양책 발표	
2009. 5. 12	추가세입원 확보를 위한 세제개편 및 지출절감을 통한 출구전략(Deficit exit strategy) 추진	
2009. 9. 29	FY2008-09 결산 발표	
2009. 11. 2	FY2009-10 반기 경제·재정전망 보고서 발표	
2010. 2. 1	장기 재정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 2010 - Australia to 2050: Future challenges) 발표	재정동향 2호
2010. 5. 11	FY2010-11 예산안 발표	재정동향 3호
2010. 5. 11	퇴직연금(Superannuation)제도 개혁 발표	
2010. 5. 11	실질지출증가율을 제한하는 재정규율 강화 정책 유지	
2010. 7. 14	총선을 대비한 수정예산안(Economic Statements) 발표	
2010. 7. 26	선거전 경제·재정전망 보고서 발표	
2010. 8. 21	호주 총선 실시 결과 노동당 정부가 재집권에 성공	재정동향 4호
2010. 9. 24	FY2009-10 결산 발표	
2010. 11. 9	FY2010-11 반기 경제·재정전망 보고서 발표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자력 회복, 실업률 하락 등으로 호주경제는 견고하게 성장
 - (성장) 적시의 통화 및 재정정책 수행의 성공적인 결과로 향후 2년간 추세를 상회하는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
 - 기업투자과 수출, 민간부문의 회복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여 FY2010-11 및 FY2011-12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3.75%와 4%로 전망
 - (고용) 지난해 경기부양조치로 약 3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고용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실업률도 점차 하락하여 FY2011-12에 4.5%를 기록할 전망
 - (물가) 예산안 전망시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2.5~3%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

<표 VII-1> 거시경제지표 전망 추이

	전망(Forecasts)							예측(Projections)					
	2009-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Budget	PEFO	MYEFO	Budget	PEFO	MYEFO	Budget	PEFO	MYEFO	Budget	PEFO	MYEFO
경제성장률	2.0	3.25	3.0	3.25	4.0	3.75	3.75	3.0	3.0	3.0	3.0	3.0	3.0
고용증가율	2.5	2.25	2.25	2.5	2.0	2.0	2.0	1.5	1.5	1.5	1.75	1.5	1.5
실업률	5.25	5.0	5.0	4.75	4.75	4.75	4.5	5.0	5.0	5.0	5.0	5.0	5.0
CPI	3.25	2.5	2.75	2.75	2.5	2.75	3.0	2.5	2.5	2.5	2.5	2.5	2.5
경상성장률	2.75	8.25	9.25	9.0	5.75	5.25	5.0	5.5	5.25	5.25	5.5	5.25	5.25

자료: Budget 2010-11, 2010. 5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 7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2010. 11

나. 재정전망

- 추세를 상회하는 경제성장과 실질지출증가율 제한 조치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FY2012-13에 흑자전환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예산수지) FY2010-11의 예산수지는 415억호주달러(GDP대비 3%) 적자를 기록한 이후 적자폭이 감소하여 FY2012-13에 예산흑자로 전환
 - FY2010-11의 경우 예산안 및 선거전 경제·재정보고서 전망보다 예산 적자폭이 확대된 주된 이유는 선거전 경제·재정보고서 발표 이후 호주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세수가 감소한 데 기인
 - (순채무) FY2010-11의 순채무는 796억호주달러(GDP대비 5.7%)로 예산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
 - FY2011-12에 예산안 전망보다 채무수준이 다소 높아지는 것은 Future Fund의 장단기 투자전략의 변경되는 것에 주로 기인
 - 순채무를 감소시키는 채권투자(fixed income investments)에서 순채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투자(equity investments)로 변경

- 재정여건은 향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
 - 예산수지는 FY2016-17에 GDP대비 1%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순채무는 FY2011-12에 GDP대비 6.4% 수준으로 상승한 후 점차 하락하여 FY2019-20에 -2%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VII-2>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추이

(단위: 십억호주달러, %)

	실적 2009-10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10-11			2011-12			2012-13			2013-14		
		Budget	PEFO	MYEFO	Budget	PEFO	MYEFO	Budget	PEFO	MYEFO	Budget	PEFO	MYEFO
재정수입 ¹⁾ (Revenue)	292.8	321.8	321.8	319.7	356.4	358.1	355.4	381.9	383.0	380.3	407.2	404.9	400.5
GDP대비 비율	22.5	22.9	22.7	22.8	24.0	24.0	24.2	24.3	24.4	24.5	24.6	24.4	24.5
재정지출 ¹⁾ (Expenses)	339.2	354.6	354.1	354.3	364.6	362.7	362.0	381.0	378.8	376.8	398.0	395.7	392.5
GDP대비 비율	26.1	25.2	25.0	25.3	24.5	24.3	24.6	24.3	24.1	24.3	24.0	23.9	24.0
재정수지 ²⁾ (Fiscal balance)	-52.9	-39.6	-39.4	-41.9	-12.1	-8.7	-10.9	2.0	0.1	4.2	6.3	6.1	4.3
GDP대비 비율	-4.1	-2.8	-2.8	-3.0	-0.8	-0.6	-0.7	0.1	0.3	0.3	0.4	0.4	0.3
예산수지 ³⁾ (Underlying cash balance)	-54.8	-40.8	-40.7	-41.5	-13.0	-10.4	-12.3	1.0	3.5	3.1	5.4	4.5	3.3
GDP대비 비율	-4.2	-2.9	-2.9	-3.0	-0.9	-0.7	-0.8	0.1	0.2	0.2	0.3	0.3	0.2
순채무 (Net debt)	42.3	78.5	80.6	79.6	90.5	89.4	94.4	93.7	89.5	93.6	90.8	87.1	92.5
GDP대비 비율	3.3	5.6	5.7	5.7	6.1	6.0	6.4	6.0	5.7	6.0	5.5	5.2	5.7

주: 1) 발생주의기준

2) 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순자본투자

3) 현금주의기준. Future Fund 수익금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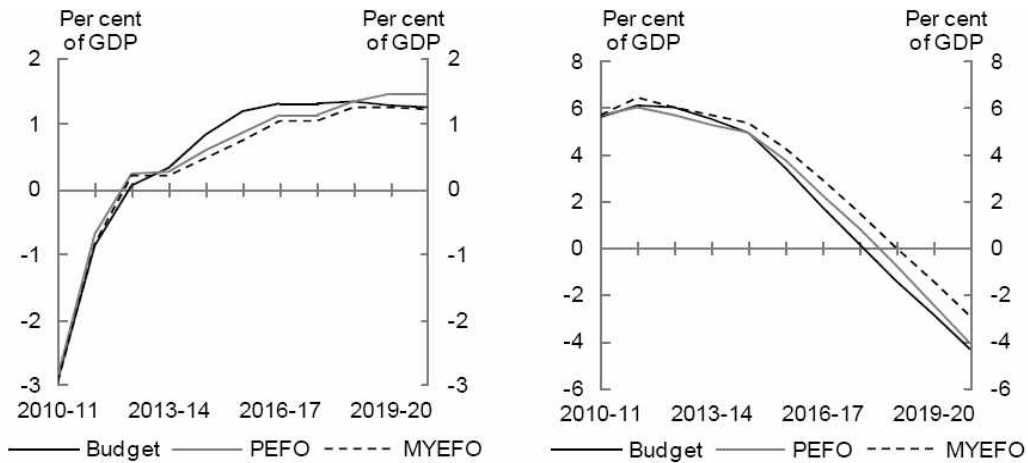
자료: Budget 2010-11, 2010. 5

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 7

Final Budget Outcome 2009-10, 2010. 9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2010. 11

[그림 VII-1] FY2019-20까지의 예산수지(좌) 및 순채무(우) 전망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2010. 11

□ 호주 정부는 FY2008-09부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고안된 중기 재정전략을 계속해서 유지

- (중기 재정전략) ① 경제 순환기 전반에 걸친 예산 흑자 달성, ② FY2007-08 수준 이하로 조세부담률 유지, ③ 중기적(medium term)으로 순금융가치(net financial worth) 증가 임

□ 2009년 2월, 중기 재정전략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 침체기와 경제 회복기로 나눈 2단계 재정전략을 수행

- (1단계 재정전략) 단기적으로 경기침체 기간에는 경제 활성화에 주력
 - 성장둔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예산적자를 주도하는 세입과 지출의 변동을 감안
 - 기존의 지출 우선순위 재조정과 예산 우선성 목표에 부합하는 지출로 경기진작을 도모
- (2단계 재정전략) 경제가 정상화되고 성장률이 회복되면서 정부는 예산흑자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
 - 호전된 경제상황에 따라 자연적으로 세입여력이 회복되는 것을 감안하여 FY2007-08 수준 이하로 조세부담률을 유지

- 최소 GDP대비 1%이상의 예산흑자를 달성할 때까지 연간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내로 제한

- 지난해 예산안을 통해 1단계 재정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호주 정부는 금년 예산안에서 가능한 빨리 예산 흑자로의 전환을 위해 2단계 재정전략을 수행
 - FY2010-11의 조세부담률은 FY2007-08의 조세부담률 수준인 23.6%보다 2.6%p 감소한 21%로 전망
 - FY2010-11~FY2013-14까지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내로 계획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로 운영

<표 VII-3> 향후 4년간 실질지출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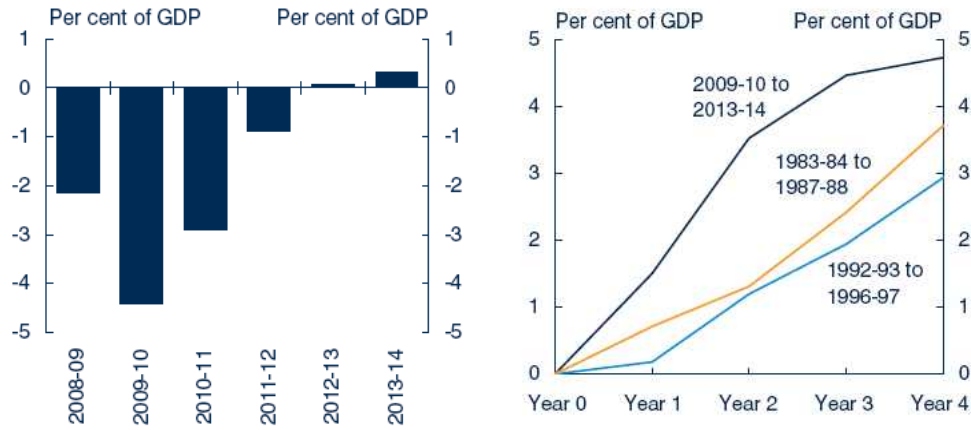
	FY2009-10	FY2010-11	FY2011-12	FY2012-13	FY2013-14
실질지출증가율	4.9	1.5	-1.1	1.0	1.6

주: 실질지출증가율은 현금주의기준의 지출로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2010. 11

- 긴축재정기조의 수행으로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비하여 예산수지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

[그림 VII-2] 예산수지 전망(좌) 및 재정건전화 조치로 인한 예산수지 개선효과(우)



자료: Budget 2010-11, 2010. 5

2. 예산기조

□ FY2010-11 예산안은 “책임 있는 경제운용과 예산 흑자로의 빠른 전환(Responsible Management and a Faster Return to Surplus)”이라는 예산기조 아래 다음 6가지 요소에 중점을 둠

○ 근로가구의 생계비용 완화 및 세제 간소화

- FY2008-09에 추진된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의 세 번째 단계로 소득기준 상향조정 및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하
 -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 상향 조정(35,001호주달러 → 37,001호주달러)
 - 38%의 소득세율을 37%로 1%p 인하
 - 저소득층의 세액공제금액 확대(1,350호주달러 → 1,500호주달러)로 효과적인 면세구간은 16,000호주달러로 인상¹⁴⁾

14) 연소득이 16,000호주달러인 근로자의 경우 6,000호주달러는 세율이 '0'이고, 10,000호주달러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은 1,500호주달러가 되나 저소득층은 세액공제로 세액이 감면되므로 소득세를 면제 받게 됨

- 고령자 세액공제(Senior Australian Tax Offset)폭 확대
 - 독신일 경우 연간소득이 30,685호주달러(현행 29,867호주달러), 부부일 경우 1인당 26,680호주달러(현행 25,680)까지 세금을 면제

<표 VII-4> FY2008-09 「근로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의 개인소득세 변화 추이

현행 세율 기준 소득구간(A\$)	세율 (%)	2008. 7. 1이후 소득구간(A\$)	세율 (%)	2009. 7. 1이후 소득구간(A\$)	세율 (%)	2010. 7. 1이후 소득구간(A\$)	세율 (%)
0~6,000	0	0~6,000	0	0~6,000	0	0~6,000	0
6,001~30,000	15	6,001~34,000	15	6,001~35,000	15	6,001~37,000	15
30,001~75,000	30	34,001~80,000	30	35,001~80,000	30	37,001~80,000	30
75,001~150,000	40	80,001~180,000	40	80,001~180,000	38	80,001~180,000	37
150,001+	45	180,001+	45	180,001+	45	180,001+	45
LITO(A\$)	750		1,200		1,350		1,500
효과적인 면세구간(A\$)	11,000		14,000		15,000		16,000

자료: Budget 2008-09, 2008. 5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투자 및 인프라 건설 확대
 - 자국 노동력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억 6,120만호주달러 규모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술훈련(Skills for Sustainable Growth)’ 전략을 수행
 - 2억호주달러 규모의 핵심기술투자펀드(Critical Skills Investment Fund)를 조성하고 견습프로그램(Kickstart Apprenticeship)을 시행하여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
 - 25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훈련제도에 2억 4,300만호주달러를 투자
 - 식자능력 및 수리능력(literacy, language and numeracy) 향상 등 기초학습능력 개선을 위해 약 1억 1,000호주달러를 투자
 -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투자

- 56억호주달러 규모의 새로운 인프라펀드¹⁵⁾를 조성하여 향후 10년간 도로, 항만 등 주요 국가기간시설사업을 지원
 - 호주의 물류운송능력 강화를 위하여 호주철도회사(Australian Rail Track Corporation)의 철도네트워크사업에 10억호주달러를 투자
-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투자
- 저오염 경제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향후 4년간 6억 5,250만호주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기금을 조성하여 풍력 및 태양광, 바이오연료 등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지원
 - 동 기금의 조성으로 기존 청정에너지계획은 51억호주달러 규모로 확대
- 자원세(Resource Tax) 도입 및 법인세율 인하 등의 조치로 경제성장 가속화
- 천연자원 생산기업에 대한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자원세를 도입
 -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참조
 -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FY2013-14부터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1%p 낮은 29%의 법인세율을 적용
-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퇴직연금(Superannuation)제도¹⁶⁾ 개혁
- 2013년 7월 1일부터 고용주의 의무분담률(Superannuation Guarantee)을 현행 9%에서 2019년 7월 1일까지 12%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또한 2013년 7월 1일부터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근로자의 나이를 현행 18~70세에서 18~75세로 확대하여 적용
 - 2012년 7월 1일부터 정부는 연소득 37,000호주달러 이하의 저소득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매년 일정액(최대 500호주달러)을 적립하고, 50세 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적립액이 50만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추가적립을 허용

15) 동 기금의 재원은 자원세제 개혁에 따른 세입으로 충당할 계획임

16) 동 제도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의 노인수당(Age pension)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200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고용주는 월 450호주달러 이상의 급여를 받는 18~70세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9%를 의무적으로 국가의 관리를 받는 연금펀드에 적립해야 하는 제도임

- 현대식 보건시스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건 및 의료개혁 수행
 - 일반의 진료시설(GP Super Clinics) 확충 및 개선을 위해 3억 5,500만호주달러 지출 계획
 - 언제라도 이용가능한 응급진료센터 서비스 제고를 위해 4억 1,700만호주달러 배정
 - 간호사 교육훈련 지원 등 간호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5억 2,300만호주달러 투자
 - 개인 의료정보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4억 6,670만호주달러를 투자

<참고 1> 자원세제 도입

- 호주정부는 FY2010-11 예산안을 통해 천연자원 생산기업에 대한 공정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자원초과이익세(Resource Super Profit Tax) 도입을 발표
 - FY2003-04 이후로 천연자원 생산업체들의 자원수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의 세부담액에 큰 변화가 없어 공정한 세금 부과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
 - 따라서 2012년 7월 1일부터 석유자원임대세(Petroleum Resource Rent Tax)가 적용되는 해상 석유·가스 개발사업을 제외한 모든 자원·에너지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발생된 수익에 40%의 세율로 세금 부과
 - 연방정부의 자원 관련 세금(crude oil excise tax)은 자원초과이익세로 통합되나,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로열티는 지속
 - 자원초과이익세의 도입으로 인한 조세수입은 자원분야에의 환원 및 금번 예산안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조세정책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
- 그러나 자원초과이익세 도입 발표 후 광산업계의 반발이 심하여 협상 타결이 어려워지자 2010년 7월 기존안보다 완화된 수정안을 제시해 기업들과의 협상 타결에 성공

- 세금의 명칭을 자원초과이윤세에서 광물자원임대세(Minerals Resource Rent Tax)로 변경
- 광물자원임대세는 석탄과 철광석 개발사업으로 국한시켜 적용하여 기존 적용대상기업 2500개에서 320개로 대폭 축소
 - 석유자원임대세를 확장하여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 석유·가스개발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 적용세율도 기존 40%에서 30%로 10%p 세율 인하
 - 또한 자본투자에 대한 수익률 보장도 확대하여 수익률의 12.7%(기존보다 7% 추가 인정)까지 광물자원임대세를 과세면세함
- 수정된 자원세제개혁에 따라 기존 전망치에 비해 15억호주달러 정도 세입이 줄어들 전망으로 동 재원으로 추진될 기타 세제개혁도 수정이 불가피
 - 법인세율 인하폭 수정: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FY2012-13부터 2%p 인하한 28% 세율 적용이었으나 자원세제 수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1%p 인하된 세율 적용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내역

- FY2010-11 예산안의 총재정수입은 전년대비 9.4% 증가한 수준인 3,218억호주달러(GDP 대비 22.9%)로 전망
 - 조세수입은 호전된 경제상황에 따라 세입여력이 회복되어 전년대비 12.2% 증가한 수준
 - 고용여건 개선과 임금상승률의 증가, 기업실적 개선, 소비 증가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외수입은 호주중앙은행의 배당금 감소와 금융기관간 자금조달(Wholesale

Funding) 및 예금보증계획(Guarantee Scheme for Large Deposits)의 수수료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21.6% 감소

<표 VII-5> FY2010-11 예산안 재정수입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실적 2008-09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09-2010	2010-11	2011-12	2012-13	2013-14
• 재정수입(Total Revenue)	298.9	294.2	321.8	356.4	381.9	407.2
전년대비 증가율	-1.6	-1.6	9.4	10.7	7.2	6.6
GDP대비 비율	23.7	22.7	22.9	24.0	24.3	24.6
- 조세수입	278.7	269.5	302.5	336.4	361.9	386.4
전년대비 증가율	-2.6	-3.3	12.2	11.2	7.6	6.8
GDP대비 비율	22.1	20.8	21.5	22.6	23.1	23.3
- 세외수입	20.3	24.7	19.4	20.0	20.0	20.8
전년대비 증가율	16.0	21.7	-21.6	3.2	0.1	4.0
GDP대비 비율	1.6	1.9	1.4	1.3	1.3	1.3

주: 발생주의 기준

자료: Budget Paper No. 1 2010-11, 2010. 5

□ 예산안 발표 이후 호주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등 경제적 변수 변화 효과로 재정수입이 다소 감소

○ 5월 예산 책정시 호주달러대비 미국달러는 90센트 수준이었으나 최근 1.01달러로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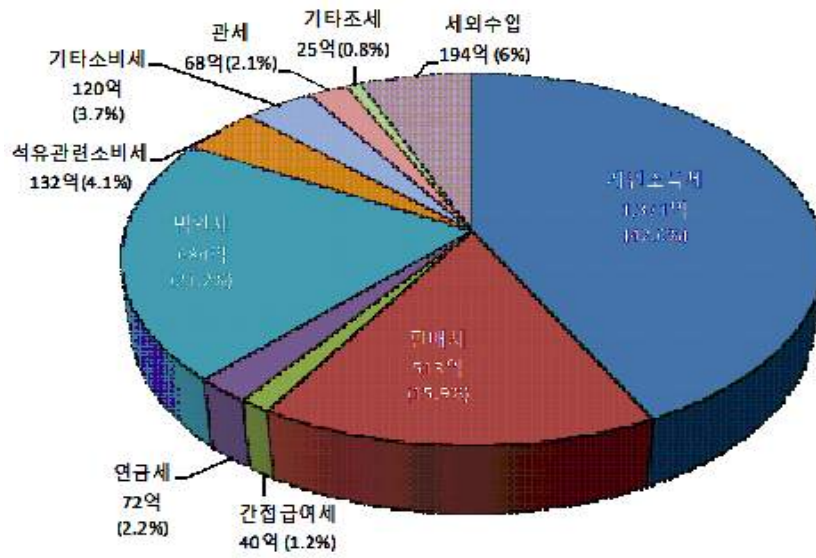
<표 VII-6> 반기 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수입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실적 2009-2010	추정(Estimates)		예측(Projections)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재정수입(Total Revenue)	292.8	319.7	355.4	380.3	400.5
전년대비 증가율	-2.0	9.2	11.2	7.0	5.3
GDP대비 비율	22.5	22.8	24.2	24.5	24.5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2010. 11

[그림 VII-3] FY2010-11 예산안의 총재정수입 내역



나. 세출내역

- FY2010-11 예산안의 총재정지출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수준인 3,546억호주달러(GDP 대비 25.2%)로 전망
- FY2008-09 및 FY2009-10에 추진된 경기부양책의 종료로 향후 재정지출의 GDP대비 비중은 점차 감소

<표 VII-7> FY2010-11 예산안과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기능별 지출 전망 비교

(단위: 십억호주달러)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BUDGET	MYEFO
일반공공서비스	20.1	21.2	20.9	21.1	21.7	21.8	22.7	22.7
국방	21.0	21.1	20.5	19.9	21.3	20.7	22.9	22.1
공공질서 및 안전	3.9	3.9	3.9	3.9	3.9	3.9	4.0	4.0
교육	33.0	33.0	29.6	29.4	30.3	30.1	31.3	31.0
보건	56.9	57.4	72.0	72.1	75.8	76.0	80.1	80.3
사회보장 및 복지	115.0	115.7	119.8	120.5	125.2	126.2	130.5	131.1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5.4	5.8	4.2	4.5	4.2	4.4	4.2	4.2
문화	3.2	3.3	3.2	3.2	3.1	3.2	3.2	3.2
에너지·연료	7.6	7.2	7.3	7.4	7.1	7.1	6.8	6.8
농림수산	3.6	3.7	3.0	3.0	2.6	2.4	2.3	2.1
광업, 건설·제조	2.0	2.0	2.5	2.0	2.5	2.0	2.6	2.0
교통·통신	4.9	5.1	6.7	6.7	8.2	7.3	7.0	6.2
경제 (other economic affairs)	9.1	8.9	8.6	8.4	8.5	8.2	8.5	8.3
기타 지출	68.8	65.9	62.5	59.7	66.5	63.6	72.0	68.6
총지출	354.6	354.3	364.6	362.0	381.0	376.8	398.0	392.5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2010. 11

□ FY2010-11 예산안의 주요 기능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기타 지출) 주 및 준주에 대한 일반세입보조 및 공공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증가 등의 기타지출은 688억호주달러로 전년대비 14.2% 증가
- (사회보장 및 복지) 사회보장 및 복지분야 지출은 1,150억호주달러로 전년대비 5.3% 증가
 -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령연금 및 소득보조지급 등의 증가에 주로 기인
- (보건) FY2010-11 보건분야 지출은 569억호주달러로 전년대비 10.6% 증가
 - 현대식 보건시스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 및 의료개혁을 수행함에 따른 지출 증가
-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FY2010-11의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분야 지출은 54억호주달러로 전년대비 39.8% 감소

- 경기부양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공공주택 건설투자가 단계적으로 삭감되는 데 주로 기인
- (교통 및 통신) FY2010-11의 교통 및 통신분야 지출은 49억호주달러로 전년대비 25.7% 감소
 - 지난해 도로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편성되었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에 기인

□ 예산안 발표 이후 정책결정 및 거시경제변수 변화 등으로 인해 재정지출 감소

<표 VII-8> 예산안 및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전망 변화 비교

(단위: 백만호주달러)

	2010-11	2011-12	2012-13	2013-14	총합계
▪ 2010-11예산안 재정지출	354,644	364,573	380,997	397,981	-
예산안과 MYEFO와의 차이	-296	-2,572	-4,209	-5,469	-12,546
- 정책결정효과 ¹⁾	220	-103	-420	-173	-476
- 거시경제변수 및 기타 변화효과 ²⁾	-515	-2,468	-3,789	-5,298	-12,070
▪ 2010-11 MYEFO 재정지출	354,348	362,002	376,789	392,512	-

주: 1) 정책결정으로 인한 공공채무 이자지급의 영향은 제외하고 결정된 정책을 위한 응급예비비 (Contingency Reserve)는 차감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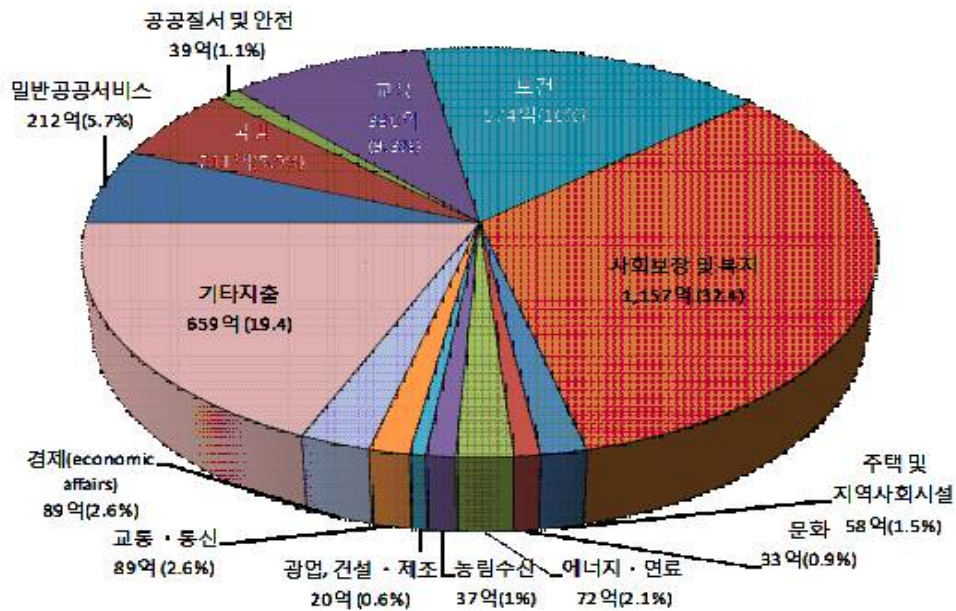
2) 경제적 요인에 의한 변동(실업급여, 가격지수 및 임금, 이자 및 환율, 주정부에 대한 GST 지급 등) 및 공공채무 이자, 기타 변동분 등이 포함

자료: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0-11, 2010. 11

- 정책결정효과로 인한 재정지출 변동 내역
 - 최우선 지역인프라 프로그램(Priority Regional Infrastructure Program) 도입으로 FY2011-12부터 약 3년간 지출 증가
 - 메디케어 보조금(Medicare Benefits Schedule)의 자동 환급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협의에 대한 비용으로 FY2010-11부터 약 4년간 지출 증가

- 지역사회 정신건강 개선 및 자살 방지를 위해 FY2010-11부터 약 4년간 지출 증가
- 거시경제변수 및 기타 변화에 따른 효과로 인한 재정지출 변동 내역(보수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약 34억호주달러 수준의 비용 삭감 포함)
 - 노동시장여건 개선으로 호주 고용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출 감소
 - FY2009-10에 메디케어 보조금(Medicare Benefits Schedule)서비스의 이용실적 저조를 반영하여 메디케어 서비스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지출 감소
 - 서호주 정부에 근해 석유 특허권(Offshore Petroleum Royalties) 지급으로 인한 지출 증가
 - 장애지원연금비용은 수급자 및 평균 지급률의 빠른 상승률로 지출 증가

[그림 VII-4] FY2010-11 반기경제재정보고서의 재정지출 자원 배분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기부양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1) 경기부양

- 호주정부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FY2008-09 및 FY2009-10에 수행했던 경기부양책을 거의 종료
 - FY2008-09에는 「경제안보전략(Economic Security Strategy)」 및 「국가건설 및 일자리 창출계획(National Building and Jobs Plan)」을 발표
 - 이에 더하여 FY2009-10에는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투자(National Building Infrastructure)」를 발표하여 경제성장 제고에 주력
- FY2010-11에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은 발표하지 않고 이전에 수행했던 정책의 일환으로 동 예산안에 영향을 주는 3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교육분야 - 교육혁신정책(Building the Education Revolution)
 -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분야 - 공공주택에 대한 투자(Investment in social housing)
 - 교통·통신분야 - 미래를 위한 국가건설계획(Nation Building Plan for the future)

2) 경제성장

- 호주정부는 자원세 도입과 법인세율 인하 조치로 경제성장을 가속화
 - 2000년대 들어 자원봄으로 천연자원 생산업체들의 자원수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의 세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어 공정한 세금부과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
 - 자원세 도입으로 확보된 세수는 인프라 건설 및 자원관련 분야 등 국가 전체의 발전을 이룩하는 데 사용될 것임
 -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

나. 재정건전화

-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재정규율 강화
 - 경제성장이 추세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하고 GDP대비 1% 이상의 예산흑자를 달성할 때까지 연간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하로 제한하는 등 긴축재정 기조로 운영
- 2009~2010년 동안 호주정부가 수행한 재정건전화 조치는 다음과 같음

날짜	주요 내용					
2009. 5. 12 (FY2009-10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개편 및 조세지출 개선으로 인한 세입확충과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적자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도록 하는 세계개편을 통해 추가 세입원 확보 - 중산층 및 부유층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환급금을 삭감하거나 폐지하여 19억호주달러의 예산을 절감 - 연간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하로 유지 (FY2009-10 예산안을 통하여 FY2011-12~FY2012-13의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계획) ▪ 위와 같은 조치로 FY2015-16에 예산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2010. 5. 12 (FY2010-11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대비 1%이상의 예산흑자를 달성할 때까지 연간 실질지출증가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긴축재정기조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추계기간 동안의 실질지출증가율 전망 					
		FY2009-10	FY2010-11	FY2011-12	FY2012-13	FY2013-14
	실질지출증가율(%)	4.9	0.9	-0.6	1.7	1.9
2010. 11. 9 (FY2010-11 반기경제·재 정전망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 발표시보다 더 강한 재정지출 감축안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추계기간동안의 실질지출증가율 전망 					
		FY2009-10	FY2010-11	FY2011-12	FY2012-13	FY2013-14
	실질지출증가율(%)	4.9	1.5	-1.1	1.0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지출 감축을 통해 FY2012-13에 예산흑자를 달성할 계획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동향』 제1~4호 참조

다. 복지지출 관리 정책

- (연금 관련) 호주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금(Secure and Sustainable Pensions) 지급을 위해 연금개혁안을 2009년 5월에 발표

- 인구고령화로 인한 연금지급액 증가에 대비하여 노령연금(Age pension) 수령연령을 상향 조정
 - 2017년 7월 1일부터 연금수령연령이 65세에서 65.5세로 상향 조정
 - 이후 2년마다 수령연령이 6개월씩 늘어나 2023년 7월 1일에는 67세에 도달
- 연금 소득심사(income test)에 적용되는 누진율 변경
 - 2009년 9월 20일부터 소득심사에 적용되는 누진율을 40센트에서 50센트로 인상
 - 소득심사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독신의 경우 초과 소득 1호주달러당 연금지급금이 50센트씩, 부부의 경우 각각 25센트씩 감소(단, 연금 전액 수혜자는 해당사항 없음)
- 330만명의 연금수혜자(노령연금, 장애인지원연금, 미망인연금 등)들이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지급금 인상조치
 - 2009년 9월 20일부터 독신을 위한 최대 연금요율을 2주 기준 65호주달러로 인상
 - 이는 기준 기초연금 인상분 60호주달러에 새로운 연금보조금 5호주달러를 추가한 형태임
 - 부부를 위한 최대 연금요율은 2주 기준으로 20.3호주달러 인상
 - 부분요율 적용 대상 독신인 경우 2주 기준 최소 20.2호주달러의 부분적 인상이 이루어질 전망
- 연금수혜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연금제도 간소화
 - 2009년 9월 20일부터 현재 연금과 더불어 지급되고 있는 각종 수당(allowance)과 새로 지급되는 연금보조금을 통합하여 연금보충금(Pension Supplement)¹⁷⁾ 형태로 지급

17) 연금보충금이란 일상 가계비 및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령연금수령자로 소득지원지급금을 받고 있거나 사별수당(Bereavement Allowance), 간호인 지급금(Carer Payment), 미망인B연금(Widow B Pension), 아내연금(Wife Pension), 장애인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화 및 용역세 보충금(Good and Service Tax Supplement), 공공요금 수당(Utilities Allowance), 전화비 수당(Telephone Allowance), 의약품비 수당(Pharmaceutical Allowance)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임